

보육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영태
원광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Childcare

Young-Tae Kim

Dept. of Childcar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보육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A시에 소재한 예비보육교사 28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실시하였으며, 변인별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하여 첫째, 보육전공 학생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이, 직업가치에서는 내적가치가, 전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에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전공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보육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 높은 보육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기효능감과 올바른 직업가치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study objective wa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281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in A city. In the study results, first,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highly perceived th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confidence of self-efficacy, the intrinsic value of occupational value, and the general satisfaction and perception satisfaction of major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occupational value, and major satisfaction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Third, the self-efficacy and occupational value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jor satisfaction. Based on these study results, there should be more diverse research for the formation of proper self-efficacy and correct occupational value, so that students majoring in childcare could perceive the importance of major satisfaction and also perform their childcare jobs with high-quality.

Keywords : Self-Efficacy, Occupational Value, Major Satisfaction, Childcare, Childcare Students

이 논문은 2016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Corresponding Author : Young-Tae Kim(Wonkwang Health Science Univ.)
Tel: +82-63-840-1503 email: kytkt@wu.ac.kr
Received February 13, 2018 Revised March 15,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직업인을 배출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학생들 자체는 전공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은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이다[1].

이러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의 행동인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의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학과가 자신의 생애나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을 것이다[2]. 또한, 전공만족도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공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하며,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 내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3].

대학에서의 전공과 전공수업이 이후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및 적응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때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경험과 직장에서의 요구 간의 불일치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4],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낮은 대학생들에 비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결국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할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졸업 후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요하다[6].

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의식 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성별, 학업 성적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나 교사의 영향, 교육 제도 등의 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되며[7], 대학 재학 중에는 학업성취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공 흥미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성공적인 진로선택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8].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이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기효능감 기대가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라

는 것이다[9].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나 교사가 갖는 만족도는 교육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보육교사가 만족감을 갖고 일을 할 때에는 업무의 성과가 높아져 이직률과 결근율이 감소하게 되고, 교육과 보육의 질이 높아져 교사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불만족 상태에서는 일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교사효능감도 낮아지게 되는데[10], 교사효능감은 보육교사의 교수 활동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11-12].

영유아교사는 직업에 대한 확신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유아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비윤리적 행동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부재이고[13], 이러한,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이며[14], 자기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이루어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이루어지기도 한다[15]. 이에,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멘토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명료한 직업가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들의 교육 등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와 전공만족도의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에서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질 높은 보육전문가를 대학에서 양성해주시기를 보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보육교사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고,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예비보육교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예비보육교사가 지각한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보육을 전공하는 예비보육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얻어 조사대상자들에게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미리 작성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며, 응답자 300명 중 불성실한 응답이거나 기재사항이 미비한 19부를 제외한 281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 예비보육교사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omponent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5	12.5
	Female	246	87.5
Grade	grade1	122	43.4
	grade2	85	30.3
	grade3	74	26.3
All		281	100

2.2 연구도구

2.2.1 자기효능감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6]이 개발하여 사용한 것을 [17]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5문항)로 5개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2].

2.2.2 직업가치

예비보육교사의 직업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18]이 번안·수정한 직업가치척도(Occupational Value Scale)를 [14]가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내적가치(11문항), 외적가치(5문항) 2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Table 2].

2.2.3 전공만족도

예비보육교사의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과 [1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20]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예비보육교사의 일반만족(7문항), 교과만족(6문항), 관계만족(4문항), 인식만족(5문항)으로 6개 하위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은 5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보육교사의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Table 2].

Table 2. Construction of questionnaire and Reliability

Spec.	Questionnaire	N	Cronbach's α
Self-Efficacy	Confidence	1*,3*,5,10*,11*,13*,16*	.539
	Self-Regulatory Efficacy	2,4,7,8,12,14,17,19,20,21,23,24	.851
	Task Difficulty	6*,9*,15,18,22	.785
	All	24	.816
Occupational Value	Intrinsic Value	1,2,3,4,5,6,7,8,9,10,11	.590
	Extrinsic Value	12,13,14,15,16	.680
	All	16	.683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1,5,8,14,15,19,21	.917
	Subject Satisfaction	2,3,7,9,12,18	.787
	Relation Satisfaction	4,10,11,16	.624
	Perception Satisfaction	6,13,17,20,22	.775
	All	22	.936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변인별의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별 관계를 알아보는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의 인식 수준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이 가장 높은 3.38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신감’이 2.93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가치의 하위요인에서 ‘내적가치’가 3.71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적가치’가 2.89로 나타났다. 셋째,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일반만족’이 3.5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식만족’이 3.5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효능감이 직업가치는 내적가치가 전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예비보육교사들은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에 대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보여진다.

Table 3. Distinction in each variables according of duty

Spec.		M	SD
Self-Efficacy	Confidence	2.93	.52
	Self-Regulatory Efficacy	3.38	.47
	Task Difficulty	2.60	.62
	All	3.09	.37
Occupational Value	Intrinsic Value	3.71	.38
	Extrinsic Value	2.89	.59
	All	3.46	.36
Major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3.58	.74
	Subject Satisfaction	3.49	.58
	Relation Satisfaction	3.35	.63
	Perception Satisfaction	3.51	.68
	All	3.50	.58

3.2 상관관계 검증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는 직업가치의 하위요인인 내적가치와 외적가치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의 각 하위요인별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3.1 자기효능감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내적가치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t=5.893$,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내적가치에 대하여 10.4%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가치에 미치는 변인은 자신감($t=5.615$,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외적가치에 대하여 9.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Verific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s

Spec.	Self-Efficacy			Occupational Value		Major Satisfacti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②	.167 ^(**)								
③	.224 ^(**)	.413 ^(**)							
④	.054	.328 ^(**)	.199 ^(**)						
⑤	.314 ^(**)	.075	.059	.259 ^(**)					
⑥	.110	.644 ^(**)	.286 ^(**)	.270 ^(**)	.183 ^(**)				
⑦	.017	.506 ^(**)	.235 ^(**)	.191 ^(**)	.037	.799 ^(**)			
⑧	.057	.454 ^(**)	.216 ^(**)	.047	.120 ^(*)	.533 ^(**)	.665 ^(**)		
⑨	.157 ^(**)	.589 ^(**)	.290 ^(**)	.314 ^(**)	.124 ^(**)	.845 ^(**)	.705 ^(**)	.478 ^(**)	

* $p<.05$ ** $p<.01$ (N=281)

①Confidence

②Self-Regulatory Efficacy

③Task Difficulty

④Intrinsic Value

⑤Extrinsic Value

⑥General Satisfaction

⑦Subject Satisfaction

⑧Relation Satisfaction

⑨Perception Satisfaction

Table 5. Factors in Self-Efficacy affecting Occupational Value

Spec.	Model	B	SE	β	t	p
Intrinsic Value	(Constant)	2.819	.154		18.278	.000
	Self-Regulatory Efficacy	.266	.045	.328	5.893	.000
	Adj R ² =.104 F=34.729 p<.001					
Extrinsic Value	(Constant)	3.946	.190		20.748	.000
	Confidence	.358	.064	.314	5.615	.000
	Adj R ² =.095 F=31.531 p<.001					

3.3.2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Table 6과 같다.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t=12.735$,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만족에 대하여 40.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t=9.972$,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교과만족에 대하여 25.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계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t=8.651$,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관계만족에 대하여 20.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식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t=12.393$,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인식만족에 대하여 34.5%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actors in Self-Efficacy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Spec.	Model	B	SE	β	t	p
General Satisfaction	(Constant)	1.552	.252		6.158	.000
	Self-Regulatory Efficacy	.984	.077	.634	12.735	.000
	Adj R ² =.409 F=67.770 p<.001					
Subject Satisfaction	(Constant)	1.386	.213		6.498	.000
	Self-Regulatory Efficacy	.622	.062	.506	9.972	.000
	Adj R ² =.253 F=99.441 p<.001					
Relation Satisfaction	(Constant)	1.318	.238		5.529	.000
	Self-Regulatory Efficacy	.602	.070	.454	8.651	.000
	Adj R ² =.203 F=74.831 p<.001					
Perception Satisfaction	(Constant)	.648	.234		2.774	.006
	Self-Regulatory Efficacy	.846	.068	.589	12.393	.000
	Adj R ² =.345 F=47.323 p<.001					

3.3.3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7과 같다. 직업가치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단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내적가치($t=6.022$, $p<.001$), 외적가치($t=4.799$,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일반만족에 대하여 13.6%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내적가치($t=3.316$, $p<.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교과만족에 대하여 3.3%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외적가치($t=2.048$, $p<.05$)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관계만족에 대하여 1.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식만족에 미치는 변인은 내적가치($t=6.571$, $p<.001$), 외적가치($t=3.892$, $p<.001$)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인식만족에 대하여 13.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Factors in Occupational Value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Spec.	Model	B	SE	β	t	p
General Satisfaction	(Constant)	2.129	.403		5.282	.000
	Intrinsic Value	.652	.108	.340	6.022	.000
	Extrinsic Value	.336	.070	.271	4.799	.000
	Adj R ² =.136 F=23.756 p<.001					
Subject Satisfaction	(Constant)	2.414	.327		7.380	.000
	Intrinsic Value	.290	.087	.191	3.316	.001
	Adj R ² =.033 F=10.999 p<.001					
Relation Satisfaction	(Constant)	3.726	.183		20.354	.000
	Extrinsic Value	.127	.062	.120	2.048	.042
	Adj R ² =.011 F=4.192 p<.001					
Perception Satisfaction	(Constant)	1.800	.372		4.835	.000
	Intrinsic Value	.657	.100	.371	6.571	.000
	Extrinsic Value	.252	.065	.220	3.892	.000
	Adj R ² =.138 F=24.162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앞으로 영·유아 교육을 담당할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의 인식수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변인별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와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가 전공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보육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살펴 본 결과, 자기효능감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이, 직업가치에서는 ‘내적가치’가, 전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자기효능감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대해 가지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로서 역할수행과 관련[21-22]이 있다는 것은 예비교사부터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가치에서는 내적가치가 높게 나타난 결과[23-24]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며 이는 내재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공만족도에서는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20, 25] 결과를 지지해주며, 이는 전공학파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 직업가치, 전공만족도의 각 하위요인별로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직업가치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즉, ‘자기조절효능감’과 ‘자신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가치의 하위요인 ‘내적가치’와 ‘외적가치’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직업가치의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가 개인이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구하는 구직활동의 영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취업에 이르는 틀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26], 외적직업가치 보다는 내적직업가치를 선호 할수록 진로성숙이 높고[27], 외적가치 지향보다는 내적가치 지향에

두는 사람이 더 높은 진로의식성숙 수준을 보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내적가치가 높다[14]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교사로서 직업가치 수준이 높은 학생이 자기효능감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직업가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야 말로 대학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즉, ‘자기조절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모두에게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전공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 볼 때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특히, ‘자기조절효능감’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예비교사는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임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측[28]함과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상호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의미[29]한다는 연구와 일치하며, 이는 모든 회귀식에서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그리고, 예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직업가치의 하위요인 ‘내적가치’, ‘외적가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일반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모두에게 직업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치의 하위요인이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직업가치의 하위요인 중 ‘내적가치’와 ‘외적가치’는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일반만족’과 ‘인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있

어서도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일치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 성취감과 보람, 자신감을 느끼게 되면서 외재적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보다 전공만족도가 높다 [23-2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직업가치의 하위요인들은 전공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보여준다.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 [23-24]으로 본다면 대학에서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모든 회귀식에서 직업가치가 전공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종합해 보면, 보육전공 학생들이 지각하는 직업가치와 자기효능감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고, 직업에 대한 내적가치와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므로 전공학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내재적 가치관 정립 및 적절한 전공지식과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기조절효능감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육전공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보육현장에서 질 높은 보육교사로서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의 전공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보육교사들이 보다 전문화된 보육교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육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보육교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30], 학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공 학과만족에 관련된 중요한 변인이다 [29, 31]는 측면에서 예비보육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직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전공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예비보육교사들의 직업가치 및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는 A시에 소재한 예비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정한 곳에 편중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연구도구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을 사용한 점과 다소 많은 질문지의 문항수로 인해 얼마나 성의 있게 답변했느냐를 고려할 때 신뢰성 확보

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References

- [1]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4.
- [2]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3] S. M. Lim, A Study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n decision on the course to take of students in security related majors,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4] H. J. Ki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5] S. W. Kang, E. K. Lea, N. M. Yang, A study About Developing the Academic Support System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the High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in Their Academic Performance in the Univers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pp. 221-242, 2000.
- [6] Y. K.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1), pp. 1793-1811, 2011.
- [7] Y. S. Lim, A Study on Career Socialization in College Students with the Focus on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al Development, 9(1), pp. 107-129, 1993.
- [8] E. K. Jeon, E. Y. Chanf, K. H. Lee, Satisfaction Factors for a Clothing and Textiles Major: a Model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9), pp. 1614-1620, 2001.
- [9]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T: Prentice Hall, 1986.
- [10] I.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of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ir Job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11] H. K. Kw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Graduate School, Chonbuk University, Ph.D Thesis, 2011.
- [12] Y. J. Choi, The children's shyness,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their effect on the school adap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13] J. H. Kim,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Scale

- for Measuring Ethical Sense of Teacher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ion,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Ph.D Thesis, 2015.
- [14] E. K.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career value and maturity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15] Y. K. Ji,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Values Clarification up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Identity,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Ph.D Thesis, 2002.
- [16] J. E. Cha, A Study of for Development of a General Self-Efficacy Scal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7.
- [17] S. J. Ha,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with Active Parenting Now(AP) on the Occupational Stress and the Teacher efficacy of Child-care Teache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8] K.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focused on self-esteem, work value, and locus of contr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Ph.D Thesis, 1997.
- [19] W. S. Cho,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j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9.
- [20] 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Ph.D Thesis, 2014.
- [21] A. Y. Kim, Teacher Efficacy: The Key Factor of Teacher Professionalism,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1), pp. 63-84, 2012.
- [22] G. Y. Noh, Various Factors and Types of Kindergarten Teachers Development in Korea :A biographical perspectiv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23] H. S. Park, A Study of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Job Valu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service-related major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5.
- [24] Y. J. Han,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Kyung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25] J. S. Nam,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ione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psychological trait variables and university life trait variable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0.
- [26] Y. J. Park, An Analysis on the Structural Model of College Major Satisfaction and First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Match and Intrinsic Job Valu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27] S. J. Ju, A study on Longitudinal days worth on a change of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affected,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Ph.D Thesis, 2013.
- [28] W. K. Sung, J.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Teaching Personality and Aptitude,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al Research*, 34(5), pp. 55-71, 2015.
- [29] J. H. Yang, N. H. Kim, S. O.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academic self-efficacy,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the child educare student teachers,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3(1), pp. 47-71, 2013.
- [30]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31] M. H. Seo, A Study on the Discriminate Variables between the Upper and the Lower Achieving Group for Major Academic Achievement and Major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D Thesis, 2011.

김 영 태(Young-Tae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보육,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직윤리